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11℃ 목포 5/11℃ 여수 5/11℃

단기 4342년 (음력 11월 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56호 1판 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외국 가는 고흥 유자 22일 고흥군 동강면의 한 유자가공 공장에서 직원들이 상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고흥 지역에서 재배·가공된 유자는 국내 판매 및 일본, 대만 등지에 수출되는 등 효자 작물로 꼽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총생산 성장률 전국 최고

광주도 지난해 전국평균 웃돌아

광주시의 지난해 지역내 총생산(명목)성장률이 전국 7대 도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로는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남도의 지난해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지출은 전국 최저수준인 반면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전남지역의 잠재성장 가능성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명목)은 2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5.5%) 증가했다.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 규모는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만 앞섰다.

또 광주의 지역총소득(명목)은 22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원(2.5%) 증가했으나, 7대 도시중 역시 가장 낮았다. 광주의 개인소득은 17조2천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보다 9천억원(5.8%) 늘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2천122만원)보다 570만원 낮은 1천552만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6위였다. 또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1천269만원)보다 80만원 낮은 1천189만원으로 5위를 차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52조7천770억 원으로 1년전의 47조210억 원에 비해 12.2%의 성장률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 경제성장률 역시 2.8%로 전국 평균인 2.4%를 웃돌았다.

전남의 지역총소득은 32.5조 원으로 전국의 3.1%를 기록했으며, 개인소득은 19조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5.3%인 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41.2%에서 39.5%로, 그리고 건설업의 비중은 10.0%에서 8.8%로 각각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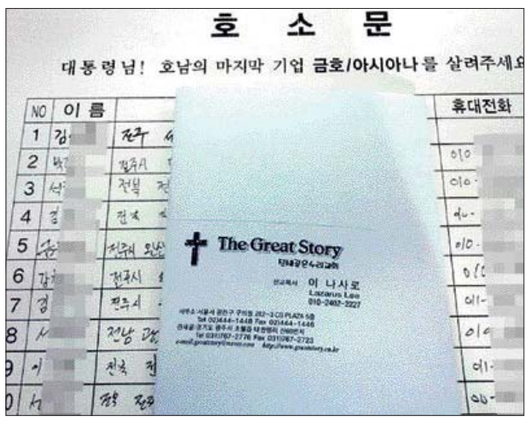
/홍행기·윤영기 기자 redplane@

앞으로 23일… 금호그룹 운명은

〈풋백옵션 행사 시한〉

대우건설 매각 불발 땐 그룹 경영권 위기

지역민 "호남 유일 대기업 살리자" 호소문



대우건설 매각이 지체되면서 향토기업으로서 유일한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우건설 풋백옵션 기한인 내년 1월 15일까지 매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금호산업 등의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민들의 걱정이 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컨소시엄 중 하나를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풋백옵션' 행사 시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후보들의 인수능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년 1월 15일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금호가 조달해야 하는 현금은 대략 4조원 이상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지분의 성공적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 대금을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룹 재무상태도 심하게 악화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금호는 또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 중 18.6%를 무상으로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이른바 민유성 산은지주 회장이 언급한 '플랜 B'다. 하지만, 채권단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등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금호산업뿐만 아니라 63년 된 금호고속, 그룹 경영권도 넘어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상의 홍호표 부장은 "금호의 위기는 국민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만큼 기업이 넘어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나사로 목사 등 크리스천 프리네트워크 소속 회원 10여 명도 이날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살려달라'는 내용으로 지역민 3만명의 서명을 담은 호소문〈사진〉을 산업은행 광주지점에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수신인으로 한 호소문에는 '호남의 마지막 기업, 금호아시아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광주와 전남·북 지역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다.

노유진(여·50·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지역에 연고를 둔 호남 유일 기업이 최근 대우건설 매각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금호가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면시행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나로호 내년 5~6월 2차 발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고교 영어 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

여수에 '천사 할아버지'

3천만원 보육원 기탁후 익명 60대 남자 사라져

여수시의 한 보육원에 60대 남자가 거금 3천만원을 전달하고 나서 말없이 사라져 추운 겨울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22일 여수시 국동 여수보육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165㎝가량의 키에 평범한 분위기의 한 남성이 보육원을 찾아왔다. 이 남자는 곧장 외투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애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며 직원에게 전달하고 곧바로 보육원을 나갔다.

보육원 직원들이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기부금 영수증도 만들어 드리겠다"며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이 남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됐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고 보육원 측은 기부금 봉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거금 3천만원짜리 수표 1장이 들어 있었기 때문.

보육원 직원이 황급히 뛰어나가 버스를 기다리는 이 남자를 만나, "존함을 꼭 알아야겠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여수시내 문수동에 사는데 모레 광주로 이사를 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버스에 올라타고 사라졌다.

보육원에서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가 신원을 파악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해 결국 실패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